

구비 서사문학에 나타난 ‘빨래’ 모티프 비교 연구*

- <바리데기>, <진주낭군>, <구렁덩덩신선비>를 중심으로 -

신연우**

<목 차>

1. 머리말
2. 서사민요 <진주낭군>의 빨래 모티프
3.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빨래 모티프
4. 구전설화 속 빨래와의 비교
5. 빨래의 문학적 의미

[국문초록]

서사민요 <진주낭군>에는 시집살이하던 새댁이 진주 남강에 빨래하는 대목이 서정적으로 펼쳐진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강변에서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무가 <바리데기>에도 저승으로 약을 구하러 가는 바리가 빨래하는 할머니 또는 아주머니를 만나는 대목이 나온다. <진주낭군>과 반대로 흰 빨래는 검게 빨고 검은 빨래는 희게 빨다고 하는 작품이 많다. 빨래 모티프가 서사민요와 서사무가에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편적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래를 전승하는 사람들이 무가와 민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 2016-0682)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있다.

〈진주낭군〉에서 빨래하는 묘사는 동일률의 세계를 나타낸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이어야 하고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유지되어야 삶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보는 것이다. 같아야 할 것에 다른 것이 개입되었으므로 머느리는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동일률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같은 것은 늘 같은 것으로 있기를 소망한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변화는 이 노래에서처럼 심지어 죽음을 가져오기까지 하기에 두렵다고 생각한다. 이 노래는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보인다.

동해안 지역에서 전승되는 〈바리데기〉 무가에서 빨래 모티프는 바리의 사만으로서의 통과제의적 의례를 상징적으로 집약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리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사만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의미가 희석되지 않고 민중적 사고가 그대로 이어지는 설화가 있어서 흥미롭다. 그것은 전국에서 채록되는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이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검은 빨래는 희게 빨고 흰 빨래는 검게 뻘다는 화소가 〈바리데기〉에서 삶과 죽음을 하나로 감싸 안는 바리의 모습으로 제시되었고, 〈구렁덩덩신선비〉에서는 시련을 거쳐서 여성성을 획득한다는 발상으로 여성적 삶의 왜소화와 억압을 암시한다면, 서사민요인 〈진주낭군〉에서는 그만큼의 역설도 용납하지 않는 현실적 여성의 생활을 그리기에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뻘다고 볼 수 있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기에 〈바리데기〉와 〈구렁덩덩신선비〉에서의 빨래는 서사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진주낭군〉에서는 집과 빨래터라는 현실 공간에서 시간이 큰 의미를 갖지 않기에 빨래 대목은 서정성이 두드러진다.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뻘다는 부분은 모든 것이 이 상태로 정리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말은 화자의 소망과 반대로 전개된다.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는 현실의 상식적 세계관은 돌변하는 세계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흰 빨래는 희게 빠는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 결과는 자신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바리데기〉와 〈구렁덩덩신선비〉 설화는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검은 빨래를 희게 빨고 흰 빨래를 검게 빠는 것은 현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모순과 부조화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수용했기에 이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 현실은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흰 것은 희게만 둘 수 없고 검은 것도 그렇다. 세계는 늘 바뀌기에 오늘 흰 것은 내일 검을 수 있다. 검은 것은 검지만 않고 희기도 하다. 사람은 선하거나 악하기만 하지 않고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다. 이런 세계의 모순과 부조화를 경험하고 끌어안는 자세를 배운 바리와 색시는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주제어〉 〈바리데기〉, 〈진주낭군〉, 〈구렁덩덩신선비〉, 빨래, 동일률, 변화

1. 머리말

<바리데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사무가이고 <진주낭군>은 주로 영남지역에서 길쌈할 때 여성들이 부르던 서사민요이다. <진주낭군>은 1980년대 대학가에서 널리 불리기도 했다. <진주낭군>에는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하던 새댁이 진주 남강에 빨래하는 대목이 서정적으로 펼쳐진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강변에서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바리데기> 혹은 <바리공주>에도 저승으로 약을 구하러 가는 바리가 빨래하는 할머니 또는 아주머니를 만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모든 <바리데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 지역의 연행본에만 나온다.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 빨래 모티프가 전승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서사무가 <바리데기>에는 <진주낭군>과 반대로 흰 빨래는 검게 빨고 검은 빨래는 희게 빨다고 하는 작품이 많다.

같은 동해안 지역을 따라 전승되는 빨래 모티프가 서사민요와 서사무가에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편적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사무가와 서사민요가 서민들의 문학의식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 의식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빨래 모티프를 어떻게 노래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리는 없으니 이는 온전히 노래를 전승하는 사람들이 무가와 민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민중의 문학의식의 일단을 드러내보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김종균은 <진주낭군> 민요가 진주 기생 월정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사실을 검토하여 “자결로 항거하여 남편을 각성시키고 영원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희구”한 작품이라고 해석하였으나, 빨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¹⁾ 길태숙은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진주낭군의

1) 김종균, 「<진주낭군>의 전승 양상과 서사의 의미」, 『온지논총』29, 온지학회, 2011, 67-93쪽.

며느리 또한 “불합리한 현실과 절망적인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면서 동시에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위안”을 삼은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²⁾ 서영숙³⁾과 이정아,⁴⁾ 박지애⁵⁾의 연구도 시집살이 민요를 다루면서 <진주낭군>을 언급하고 있지만 빨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서사무가 <바리공주> 또는 <바리데기>에 대한 연구성과는 매우 많은데 홍태한은 이를 검토하면서 서사단락 23, “바리공주는 도중에 주어진 과업을 해결한다” 항에서 “빨래를 씻어주거나, 밭을 갈아주거나, 밭을 매주는 일을 해주고 길안내를 받는다.”로만 정리하고 빨래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⁶⁾ 빨래 자체에 관심을 표명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바리데기>와 <진주낭군>에서의 빨래 모티프는 작지만 뚜렷한 대조 속에서 민중이 보여주는 삶의 인식, 문학 갈래의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우선 서사민요인 <진주낭군>의 여러 각편을 살펴보고 빨래 모티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한다. 이를 기준으로 서사무가 <바리데기>에서의 빨래 모티프가 어떻게 대조적으로 구현되는지 자료를 제시하고 해석을 도모한다. 구비문학에서 빨래 모티프는 설화작품인 <구렁덩덩신선비>와 <조마구>설화에서도 나타나기에 이를 아울러 검토하고, 두 갈래에서의 대조점이 설화에서도 확인되는지 검토한다.

민요에서의 빨래 모티프와 무가에서의 빨래 모티프의 의미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무가는 신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일상의 논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같은 빨래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의미의

2)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9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208쪽.

3) 서영숙, 『시집살이 노래 연구』, 박이정, 1996.

4)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와 말하기의 욕망』, 혜안, 2010.

5) 박지애, 「<시집살이요>의 연술방식과 시공간 의식」, 『한국민요학』10, 한국민요학회, 2002, 147-163쪽.

6) 홍태한이 이를 정리한 바 있다. 홍태한, 「<바리공주>의 연구성과 및 무가권의 구획」, 김진영 홍태한, 『바리공주 전집』1., 민속원, 1997, 30쪽.

빨래와 신화적 의미의 그것은 다른 양상을 가질 것이다. 이를 노래하는 민중은 민요와 신화의 갈래적 차이를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작품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사민요 <진주낭군>의 빨래 모티프

서사민요 <진주낭군>은 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전해지는 민간 부녀요이다. 비교적 단순한 서사여서 각편이 여러이어도 서사구성의 차이점은 별로 없다. 시집살이 3년 만에 낭군이 온다고 하여 진주 남강에 빨래 하러 갔다는 내용 다음에 이런 사설이 나타난다.

하늘같은/진주낭군
 채판같은/갓을씨고
 구름같은/말을타고
 진주낭간에/행하면서
 본체만체/하엿더라
 담방귀가/어이없어
 검은빨래는/검기빨고
 흰빨래는/희기빨아
 두덩덩두덩덩/씨쳐가주
 통에다담아/두서이고
 자기의집에/행하오니

이것은 『한국구비문학대계』 7-2, 경상북도 월성군에 전해지는 민요이다. 다른 각편에도 진주 남강에 빨래하러 가서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빨아 돌아온다는 모티프가 거의 예외 없이 들어 있다. 한국구비문

학대계를 예로 들면 색인(진주 난봉가, 진주 남강, 진주 낭군, 진주 낭군가)에 보이는 30편 중에 27편이 그렇다.⁷⁾ 반대로 검은 빨래 희게 빨고 흰 빨래는 검게 뻘다는 것은 1편(7-8 480)만 있다. 1편은 과형의 내용이어서 빨래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7-5 194), 1편은 “임의 서답 희게 씻고 이내 서답 검게 씻”는다는 것이다(8-11 301). 조동일이 경상북도에서 채록한 자료에도 11편 중 9편이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뻘다고 되어 있다. 1 편은 빨래 모티프가 없는 과형이고(C4. 이순녀), 다른 하나는 “임에 서답 양지에 넣고 이내 서답 음지에 넣고”라고 해서(C8, 권금남) 희고 검은 것을 암시만 했다.⁸⁾

서사민요 <진주낭군>의 대다수의 각편에서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뻘다”는 내용의 전승에 착오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에서 흰 것은 흰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더 천착해보자. 그러기 위해 서사 전개를 다시 살펴본다.

<진주낭군>의 주인공은 진주낭군의 젊은 아내이다. 신랑은 과거 보러 서울로 떠나가 있는, “울도 담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던 어느날, 시어머니가 빨래하러 가라고 해서 진주 남강으로 나간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높은 갯을 쓴 신랑이 못 본 듯이 지나갔다.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신랑은 사랑방에서 기생첩을 옆에 끼고 술자리가 한창이다. 이것을 본 며느리가 돌아나와 약을 먹고 목을 매어 죽자, 신랑이 뛰어 나와 후회하며 운다고 하는 내용이다. “남편과 아내의 처지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남편의 배신에 대한 항변이 준엄하다.

7) 권수와 쪽수를 차례로 든다. 진주난봉가: 5-7 233/ 5-7 670/ 8-14 404/ 8-14 601/ 진주남강: 7-4 278/ 7-14 433/ 1-15 648/ 7-16 176/ 진주낭군: 3-1 481/ 5-2 674/ 7-1 510/ 7-4 347/ 7-5 201/ 7-5 235/ 7-5 375/ 7-7 646/ 7-12 561/ 7-13 856/ 7-16 217/ 7-17 665/ 7-17 688/ 7-18 221/ 8-11 766/ 8-13 173/ 8-13 429/ 진주낭군가: 6-8 755/ 6-8 790.

8) 조동일, 『서사민요연구』<자료편>, 계명대출판부, 1983, 226-235쪽.

짧으면서도 묘미가 있는 서사민요이다.”라는 평가가 적실하다.⁹⁾

작품의 문면으로만 생각하면 이 작품의 빨래 모티프는 아내를 몰라보고 지나치는 남편의 무심함을 드러내는 화소일 수 있다. 실제로 너무 더러워져서 검어진 빨래를 원래의 흰색으로 돌려놓는 사실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뻘다”는 것은 일상이고 상식적이다. 서사 민요는 농민 여성의 일상을 소재로 하고 그들의 “생활적 이념을 문학적으로 표현”¹⁰⁾한 것이다. 여기서의 일상과 상식은 있는 것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점은 이 민요에서 세 차원으로 제시된다.

우선 빨래하는 장면 자체이다. 진주 남강으로 빨래를 가니 그곳은 경치도 좋은 곳이다. “물도 좋고 돌도 좋아 투닥투닥 씻다가니”(조동일, C7. 231). 강으로 빨래를 하러 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그 곳은 물도 좋고 돌도 좋다고 하니 빨래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리고 그 빨래는 흰 것은 희게, 검은 것은 검게 하여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고 확인하는 행위이다. 빨래하는 동안은 아무런 위기가 없다. 둘째, 사달이 난 것은 이와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보니 신랑이 기생첩을 옆에 끼고 술자리를 벌이고 있다. 며느리는 곧바로 나와서 죽고 만다. 이 사태는 있을 것이 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겼다. 가난한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신랑을 기다리던 며느리는 신랑이 기생첩을 끼고 있기에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 셋째, 이에 바로 이어서 신랑은 “버선발로 뛰여 나와 첩으야 정은 삼년이고 본처야 정은 백년이라/ 아이고답답 웬일이고.”(조동일, C2 227)라며 한탄한다. 이는 본래의 자리를 확인하는 결말이다. 있을 것이 제 자리에 있도록 돌려놓는 것이다.

<진주남강>에서 빨래하는 묘사는 노래 전체의 주제를 집약하는 서정적 집약구이다. 서사민요이기에 이야기는 시간의 결을 따라 흘러가지만 빨래

9) <진주남강> 항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0) 조동일, 앞의 책, 166쪽.

하는 부분은 시간의 변화를 무화시킨다. 자연인 진주 남강의 물과 돌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으로 아름답듯이 빨래를 통해 제 자리를 확인하는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었다. 자연과 달리 인간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의 빨래는 동일률의 세계를 나타낸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이어야 하고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유지되어야 삶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보는 것이다. 같아야 할 것에 다른 것이 개입되었으므로 머느리는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동일률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같은 것은 늘 같은 것으로 있기를 소망한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변화는 이 노래에서처럼 심지어 죽음을 가져오기까지 하기에 두렵다고 생각한다. 이 노래는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보인다.

3.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빨래 모티프

서사무가 <바리데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승되지만 빨래하는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동해안을 따라서이다. 서울 경기 호남 쪽으로는 모두 바리데기가 길을 떠나서 바로 저승 세계로 들어가고 동수자를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리가 궁을 떠났지만 저승을 어떻게 가는지 길을 몰라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길을 묻고 과제를 수행한 끝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예를 보인다. 속초 탁순동 본이다.

얼매나만침 당도하니 어떤 부인이 빨래를 씻는구나
부인님네요 어데로 가면은 서천서역국으로 갑니까 가르쳐주오
아니 이 빨래는 언제 다 씻고 서천서역국을 가르쳐줍니까
이 빨래를 다 씨주면 서천서역국을 가르쳐주리

그 빨래를 씻어주는데 동지선달 설한풍에 얼음을 깨며
 빨래를 씨니 허연건 시커멓게 씻어달라 하네요.
 시커먼건 허영게 씻어 달라 하네요.¹¹⁾

어떤 구연본에서는 그렇게 빨래를 할 뿐 아니라 검은 솥을 회게 씻어 주어
 야 약수물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도 한다¹²⁾. 이처럼 검은 빨래를 회게, 흰 빨
 래는 검게 빨아달라는 모티프는 동해안 지역에 일반적이다. 그 양상을 『바리
 공주전집』에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바리공주전집1』:

함흥 이고분 73쪽. 흰 수꾸 흰 서답을 경기시구 검은 서답을 회게 씨치면
 서리“

『바리공주전집2』:

안동 송희식. 16쪽. “거먼 빨내 회도록 다 서쥌 갈쳐주지” “거믄 수정 회도
 록 다 시어지독”

통영 박복개. ----

김해 강분이. 48. “검둥 빨래 회도록 씻기어” “이 검둥 솥 회도록 씻겨주이만”

명주 신석남. 82. “검은 빨래를 마 회게 씻고/ 흰 빨래를 마 검게 씻고”

강릉 송명희. 161. 부처님의 새벽 공덕으로 검은 빨래는 회게 되어/ 흰 빨
 래는 검빛이 되어

속초 신석남. -- 무가의 전반부만 있음 --

속초 탁순동. 224. 허연건 시커멓게 ... 시커먼건 허영게 씻어달라 하네요

양양 지영숙. 245. 새까만 빨래 갖다 놓고... 그 빨래를 하얗기 빠래지니

영일 김석출. 335. 검은 빨래 저거로 회게 씻가야 ... 흰 빨래로 검은 색이

11) 김진영 홍태한, 『바리공주전집 2』, 민속원, 1997, 224쪽.

12) 같은 책, 48쪽. 김해 강분이본.

나게 씻가야

동래 김경남. 414. 이쪽 빨래는 하도 희게 백설같이 씻고....빨래 한 통이
검아지네

영일 김복순. 467. 검은 저고리에 검은 빨래를 백설같이 씻겨주면 내 가리
켜주마

『바리공주전집3』;

울주 유일순. 361. 검은 솟을 흰 빛 나도록 씻을 겁니다

살펴보면 속초 신석남 것은 무가의 전반부만 있어서 서역국으로 가는 내용이 없기에 빨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 통영 박복개 본은 호남지역처럼 떠나자 바로 서천 꽃밭의 선관을 만나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연전 승본과는 달리 필사본들에는 빨래 이야기는 빠져 있는 것이 많다.

동해안을 따라 원산 북쪽에 있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전하는 바리데기 이본인 <칠공주>에도 이 화소가 나타난다. 바리가 어머니 약을 구하기 위하여 서천서역국으로 가면서 길을 여러사람에게 묻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한 길에 들어서 흰 수꾸 흰 서답을 경기시구 검은 서답을 희게 씨치면서리 있는 아주머니”¹³⁾이다.

이들 작품에서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은 서사민요인 <진주낭군>과는 반대로 무가에서는 흰 빨래는 검게, 검은 빨래는 희게 빨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진주낭군>에서는 흰 빨래는 희게, 검은 것은 검게 빨았다고 했다. 이 차이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진주낭군>에서처럼 바리데기에서의 빨래 모티프의 양상을 살펴보자.

<진주낭군>과 비교해보면 우선 <바리데기>의 빨래는 일상적 빨래가 아니다. 상식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바리에게 시험으로 주어진다. 흰 빨래

13) 김진영 홍태한, 『바리공주전집 1』, 민속원, 1997, 73쪽.

를 검게 빨고 검은 빨래는 희게 빨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때로는 더욱 극적으로 검은 솥을 하얗게 씻으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를 해 내는 능력은 바리 자신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령 또는 부처의 신비로운 도움으로 처리된다.

빨래판에 떡 걸터 앉아 암만 씻거니 검은 게 희기 되고
 흰 기 검은 게 될 리가 있는겨
 그 때 인자 수미산 사십팔 봉사 스님의 공덕으로 염불공덕으로 한 번 씻
 거봅시다
 --(정구업진언 서두)--
 정구업진의 서둔데 구업지는 눈을 감고 떠올 동안에
 부처님의 새벽 공덕으로 검은 빨래는 희게 되어 흰빛이 나고
 흰 빨래는 검빛이 되어 흑빛이 나네¹⁴⁾

동래 김경남 본에서는 빨래하는 중 옆에 보니 할머니가 자는데 그 몸이 이가 버글버글한 것을 보고 바리가 빨리 끝내고 할머니 이를 잡아줘야겠다는 동정심을 내자 바리 주위로 흰 눈이 내리면서 빨래 색이 변하였다고도 한다.¹⁵⁾ 이런 발상은 흰빨래를 검게 빠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초월적인 힘의 도움이나 기적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무녀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납득할 수 있게 인과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으로 불교적 또는 초월적 힘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지는 것이다. 사실은 초월적 힘의 설정 이전에 빨래 모티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가적으로 해설을 붙인 것이다.

무속 연행자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함흥본에서도 나타난다.

14) 강릉 송명희본. 앞의 책, 161쪽.

15) 동래 김경남본. 같은 책, 414쪽.

함흥본의 바리는 서천서역국으로 생명수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고 그 중에서 흰빨래를 검게 빠는 아주머니에게 죄상을 알아오는데, “아주머니 죄상이는 무시긴가 하너면 나무 싹 빨래를 하게 되며는 싹빨래는 존 거는 가주고 나쁜 거는 다 씨쳐서 잘 뒤드려서 다린 그죄랍니다.”¹⁶⁾ 남의 빨래를 해 주면서,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벌이라는 것이다. 흰 빨래를 검게 빨고 검은 빨래를 희게 빠는 것은 일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너무도 힘든 일이어서 나쁜 짓에 대한 벌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의미의 생성은 바리가 저승으로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말미암는다. 저승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말이다.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살아야 한다. 삶과 죽음이라는 이승에서의 명백한 구분을 무화시켜야 한다.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인 과정을 통과해야 바리는 저승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가 가려는 저승은 세속의 발이 닿지 않은 신성한 곳이다. 바리도 강을 건너 저승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은 이승과 저승이 단절된 공간임을 보여준다. 신성한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민속에서 원새끼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원새끼는 금줄로 이용되어 일상적 공간이 아닌 “신성한 제장이나 기타 잡인의 출입을 삼가는 장소 또는 아기 낳은 때도 치게 된다.”¹⁷⁾ 일상에서는 오른새끼를 쓰지만 일상이 아닌 곳에는 왼새끼를 쓴다. 바리가 가는 곳은 일상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일상을 뒤집어놓는 제의가 필요한 것이다.

제주도 곳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시왕맞이 곳에서 불리는 <차사본풀이>가 있다. 강림이가 원님의 명령으로 저승에 다녀와야 하는데 원이 일종의 증명서를 써주었는데 잘못되었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생인(生人)의 소지(所志)는 흰 종이에 검은(黑) 글이나 저승 글이야 어찌 이리

16) 김진영 흥태한, 『바리공주전집 1』, 민속원, 1997, 78쪽.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돼웁네가?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써 줘서. 원님이, ‘올타 나가 실수 돼엿구나.’¹⁸⁾ 저승은 현실의 일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현실이 뒤집혀 있는 곳이다.

결국 동해안 지역에서 전승되는 <바리데기> 무가에서 빨래 모티프는 바리의 샤먼으로서의 통과제의적 의례를 상징적으로 집약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리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샤먼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불교적 윤색을 입어 그 의미가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티프가 서울 등 다른 지역 바리데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 모티프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런데 이 의미가 희석되지 않고 민중적 사고가 그대로 이어지는 설화가 있어서 흥미롭다. 그것은 전국에서 채록되는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이다.

4. 구전설화 속의 빨래와의 비교

<구렁덩덩신선비>는 잘 알려진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큐피드와 싸이키>와도 같은 내용으로 세계적으로는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AT425) 유형의 설화이다. 이 설화에 빨래 모티프가 나타난다.

구렁이 허물을 벗은 신랑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나고 언니들의 꼬임에 빠져 뱀허물을 태우자 신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각시는 신랑을 찾아 길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동물, 농부, 빨래하는 여인을 만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고 신선비의 집을 찾는다. 새신부와 신부경쟁을 한 끝에 다시 부부가 되어 잘 살았다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 빨래 부분을 간단히 하나 들어 보인다.

18)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09쪽.

노인네가 요마한한 동달(옹달)샘이서 빨래를 허더랴. 그래서 인제 빨래를 허면서 이렇게 앉았이닝개, “할머니, 나 구렁덩덩 소선비 가신 질이 워딩가 좀 일러달라.”구. 그러닝개, “그러머닌, 내 거먹 빨래를 희게 해주구 흰 빨래를 경게 해주면 일러주마.”구. 그래 자기가 그걸 했다 인저.¹⁹⁾

보다시피 상당히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다. 동해안 <바리데기>가 이 부분을 장황하고 초월적 힘을 끌어들여 설명한 것과 다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이 모티프가 나타나는 각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대계 1-9. 200-205쪽. 오수영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2. 대계 1-9. 453-460. 권은순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3. 대계 4-5. 162-165. 박용애 구연, 구렁덩덩 소선비
4. 대계 4-5. 355-362. 황필녀 구연. 구렁덩덩 소선비
5. 대계 4-6. 178-188. 유조숙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6. 대계 4-1 357-360, 손양분 구연, 구렁이를 낳은 할머니
8. 대계 5-4. 827-833. 고아지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9. 대계 8-10. 597-606. 김수영 구연. 구렁선비
10. 대계 8-11, 440-446. 박연악 구연, 구렁이 신랑
11. 대계 8-13. 558-564. 우두남 구연. 구렁덩덩 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이 유형의 설화가 49편 등록되어 있는데 서사 단락을 모두 갖춘 것은 18편 정도이다. 대다수는 짧게 줄거리를 소개한 것이 많고, 신랑을 찾아 떠난 각시가 바로 신랑이 사는 집이나 마을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동물과 노인의 시험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중에서 <10. 대계 8-11, 440-446. 박연악 구

19) 한국구비문학대계 4-5. 충청북도 부여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359쪽.

연, 구렁이 신랑>만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빠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흰 빨래는 검게 하고 검은 빨래는 희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행 과정에서 길을 물어보느라고 빨래를 하고 발을 갈아주고 하는 등의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많다는 점은 <바리데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리도 궁을 떠나서 바로 부처를 만나거나 저승으로 들어가 동수자를 만나는 각편이 많다. 민담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목적지로 바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길을 물으면서 시험을 당하는 모티프는 이차적이어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티프가 나타나면 거의 반드시 검은 빨래는 희게 빨고 흰빨래는 검게 뺀다는 역전의 사고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진주낭군에서는 거의 반드시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뺀다는 동일률적 사고가 지배적인 것과 반대로 이 경우에는 모순 또는 역설적 사고를 노정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리데기>의 경우는 <바리데기>가 신화이므로 신화적 사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신의 세계 또는 저승은 이승과 반대라는 사고와 이승과 다른 신성한 공간이라는 생각에서 이승의 것이 역전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므로 역전의 과정을 몸으로 겪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경우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인다. 지금은 민담으로 처리되지만 <구렁덩덩신선비>는 신화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인 <큐피드와 싸이키>가 신화로 수용되는 것과 같다. 서대석은 구렁이를 업신으로서 용신과 함께 가정에서 숭앙되는 수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20)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227쪽.

이 과정을 마친 색시는 샘에 빠지게 되고 그러자 구렁덩덩신선비가 사는 곳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아 그래 그럭허구 나닝께. 은복주께, 그 은복주께라능 게, 은 은식기에 덮는 뚜껑이 은복주께지요. 그걸 샘이다 둥실둥실 떠 주면서, “여기를 올라갈 것 같으면 만난다.”구 그래요. 그래 인제 ‘죽으면 대수냐?’구 하라는대루 거기 올라가서 인제 풍덩 빠지닝께 용궁에 들어가. 땅바닥에 발이 다, 보니까, 물은 간 곳 육구서 어느 고루거각 솟을 대문 앞이 사랑 마당이 가 댔단 말여.²¹⁾

밥그릇 뚜껑을 배 삼아 타고 앉자 샘 아래로 풍덩 빠지고, 그 길이 바로 신랑을 만나는 길이였다. 이 화자는 특히 ‘인제 죽으면 대수냐’하고 물에 빠진다고 하여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에 시험을 겪고 강을 건너는 모티프는 <바리공주>에서 나왔었다. 바리데기에서도 강을 건너자 약수가 있는 세계로 들어간다. 여기서 『그림 민담』의 헨델과 그레텔이 강을 건너 집으로 가는 것을 비약적인 성장으로 보는 베텔하임의 착상을 연관지어보게 된다.²²⁾ 같은 방식으로 강은 바리데기나 색시의 비약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보면, 빨래를 포함한 과정은 저 세계로의 이행 자격을 얻는 학습 과정을 나타낸다.²³⁾ 저 세계로의 이행은 이 세계를 역전시키는 과정이다. 이 세계에서 죽은 자는 저 세계에서 산 자이기 때문이다.

바리의 경우는 삶과 죽음을 하나로 포용하는 존재로 거듭남을 보여주고 구렁덩덩 색시의 경우는 죽음과도 같은 성숙의 과정을 겪고서야 신랑을 만나는 것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는 바리는 신화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반

21) 대계 4-6, 185쪽. 유조숙 구연.

22) 유종호, 「문학과 심리학」, 김우창 김홍규 편, 『문학의 지평』,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3. 213-232쪽.

23)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결혼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21-150쪽.

면, 구렁덩덩 색시는 민담화하면서 자아를 죽여서 사는 여성의 성숙을 강요하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으로 변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이 웅달샘으로 작아지고 배로 건너던 것이 밥주발 뚜껑을 탄다고 하는 것도 여성의 왜소화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축소하고 희화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빨래 모티프의 축소는 조마구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쫄지 닷발 주둥이 닷발>이라고도 하는 <조마구> 설화는 ‘조마구’ 또는 ‘쫄지 닷발 주둥이 닷발’이라고 하는 새 형상의 괴물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하자 그 아들이 괴물의 거처를 찾아가서 죽여서 어머니의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아들이 첩첩산중에 있는 괴물의 거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도와주고 길을 묻는 화소가 나타나는 각편이 약간 있다.

이 설화 유형은 이제까지 12편의 각편이 조사되었는데²⁴⁾, 이 중에서 빨래 화소가 나타나는 각편은 세 편이다. 그 중 두 편²⁵⁾은 빨래를 씻어서, 헹구어서, 농 안에 넣는다는 것으로 희고 검은 빨래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 편만이 빨래 화소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 빨래를 다-검은 빨래는 희게 해주고 흰 빨래는 검게 해주고 이력하면 내 가르쳐 준다.”²⁶⁾고 한다. 이는 신화적 요소가 희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흰 것과 검은 것의 역설을 드러내는 각편이 있는 것은 신이한 세계로 진입하는 이 설화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각편이 하나 뿐이고 두 편은 단순하게 빨래 이야기로 전이되는 것은 그 역설의 의미가 이해되거나 수용되지 못하여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각편에서는 빨래 화소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조마구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축소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과정보다는 조마구가 살고 있는 숲 속 또는 지하세계의 의미, 또는 복수가 더 중

24) 이 자료 목록은 다음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오정아, 「<조마구 설화>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8, 10쪽.

25) <쫄랭이 닷 발 주둥이 닷 발>, 『한국구비문학대계』 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322-326쪽.

<열댓발 되는 새>, 임석재 편, 『한국구전설화』 10, 평민사, 1987, 346-347쪽.

26) <조마구>, 『한국구비문학대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36-40쪽.

요한 것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바리데기> 각편 중에서 울주 지방 것은 빨래가 아니라 검은 솥을 희게 하라는 내용으로 변해있다. 솥을 희게 한다는 화소는 제주도 시왕맞이굿 안의 <차사본풀이>와, 전국적으로 전해지는 설화 <동방삭> 이야기에 들어 있다. 먼저 <차사본풀이>에서 해당 부분을 보자. 염라대왕은 삼천년이 되어도 죽어서 저승으로 오지 않는 동방삭을 잡으러 강림차사를 지상으로 내려보낸다. 강림이가 냇가에서 솥을 물에 씻고 있으려니 지나가던 동방삭이 무슨 일로 솥을 씻느냐고 묻고 강림은 검은 솥을 하얀 솥으로 씻으면 약이 된다고 해서 씻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에 동방삭이 “내가 동방색이 삼천년을 살아도 그런 말 들어본 도레 웃노라.” 하자, “강림이가 방끗 웃으멍 율의 찻단 홍사(紅絲)줄을 내여놓고 동방색이 스문절박(四肢結縛)을 한다.”²⁷⁾ 이렇게 해서 강림의 피로 동방삭을 잡아서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바리데기>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차사본풀이>의 강림도 바리공주처럼 지상에서 저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존재이다. 이런 점이 이유가 되어 제주도 곳에는 <바리공주>가 전승되지 않는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강림이 첫째 부인의 도움으로 저승으로 떠날 때 이승과 저승은 법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강림이 원님에게서 받아온 저승본짚이 흰종이에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본 부인이 달려가서 따져서 바뀌 온다. “생인(生人)의 소지(所志)는 흰 종이에 검은 글이나 저승 글이야 어찌 이리 뒤흘네까?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써 줘서.”²⁸⁾ 양창보 심방 구연본에는 이 대목이 “아이고 저심과 이심은 정·반대라 허엿십네다. 저심 가는 적폐지랑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씌뒤흘 배슬 노명 씌어줘사 저승데려 간다헝디다.”²⁹⁾라고 하여 이승과 저승은 법도가 반대라고 한다.

바리데기와 비슷하게 저승을 다녀오는 강림차사 이야기에서는 빨래가

2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28쪽.

28) 같은 책, 209쪽.

29) 허남춘 외, 『양창보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0, 241쪽.

아니라 솥이 등장하는 것이다. 빨래는 검은 것이 희게 되거나 흰 것이 검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솥을 희게 씻을 수는 없는 일이다. 솥을 희게 씻는다는 것은 동방삭을 잡기 위한 강림의 꾀일 뿐이지 실제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점을 본풀이 내에서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화적 인식에서는 바리데기 무가나 차사본풀이나 삶과 죽음이 섞이는 과정을 거쳐서 이승과 반대인 저승으로 갔다 오는데, <바리데기>에서는 빨래 화소를 통해 신화적으로 역전과 역설이 더 강조되는 반면 <차사본풀>에서는 돌아갈 뿐 돌아오지는 못하는 인간적 상황이 더 강조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동방삭은 삼천년이나 죽음을 피해왔지만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저승으로 가고 말게 된다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바리데기>에서는 죽음이 다가 아니고 세발 심지를 통해 환생을 점쳐보는 과정을 마련해둔 것처럼 다음 생이 있다는 신화적 인식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 점은 바리데기 무가를 부르기 전 사재삼성 거리의 중디 노랫가락에서 “속 비신 고향나무에 새 잎 나라고 우짖느나/ 곁잎은 이올어졌으면 새 속잎 날까”³⁰⁾하는 것처럼 환생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으로 방증될 수 있다. 빨래 화소에서 솥 화소로의 변이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신화적 사고의 강조와 인간적 상황의 강조의 차이가 빚어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방삭> 설화는 『한국구전설화 경기도편』에 1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29편이 전하는데³¹⁾, 이야기의 후반부가 강림차사 이야기와 같다. 전반부는 주로 동방삭의 욕심이나 심술 등과, 짧은 수명을 알게 되어 저승명부에서 이를 고쳐서 수천 년을 살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결국은 동방삭을 잡으러 내려온 저승사자가 냇가에서 솥을 씻고 있으려니 지나가던 동방삭이 그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유를 묻고, ‘삼천년을 살아도 솥을 희게 씻는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하게 되어 결국 저승으로 잡혀간다.

30) 김현선, 『서울지역 안안팎굿 무가자료집』, 보고사, 2006, 175쪽.

31) 손지봉, 『한국설화의 중국인물 연구』, 박이정, 1999, 55쪽.

이 설화가 제주도 굿에 수용된 것인지 굿의 이야기가 설화로 떨어져나갔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 설화도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뿐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인간적 상황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빨래보다는 숯을 소재로 이용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설화는 중국의 <동방삭> 설화가 우리나라로 전래된 것이겠는데, 중국의 이야기에는 숯 화소로 인해 동방삭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³²⁾ 중국 <동방삭> 설화는 선도복숭아를 먹고 장수하게 된 사연과 장수로 인해 생기는 일들이 주를 이룬다. 죽어서 신선이나 용이 되었다고도 한다. 모두 신비함을 강조할 뿐이다. 그리고 보면 빨래 모티프는 우리나라 설화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삼국유사』 <탈해>설화로부터 근대의 최제우의 아버지인 <근암공 최옥> 설화까지 빨래하는 할머니 모티프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필요로 할 것이다.

5. 빨래의 문학적 의미

이상의 검토를 요약하면, 검은 빨래는 희게 빨고 흰 빨래는 검게 뻥다는 화소가 <바리데기>에서 삶과 죽음을 하나로 감싸 안는 바리의 모습으로 제시되었고, <구렁덩덩신선비>에서는 시련을 거쳐서 여성성을 획득한다는 발상으로 여성적 삶의 왜소화와 억압을 암시한다면, 서사민요인 <진주낭군>에서는 그만큼의 역설도 용납하지 않는 현실적 여성의 생활을 그리기에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뻥다고 볼 수 있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행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기에 <바리데기>와 <구렁덩덩신선비>에서의 빨래는 서사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진주낭군>에서는 집

32) 손지봉은 다양한 중국 문헌에서 21편의 동방삭 설화를 찾아 소개하였는데 그 안에 숯 화소는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손지봉, 위의 책, 61-73쪽.

과 빨래터라는 현실 공간에서 시간이 큰 의미를 갖지 않기에 빨래 대목은 서정성이 두드러진다.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뻥다는 부분은 모든 것이 이 상태로 정리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준다. 집에 없었던 신랑이 돌아오고 자신은 신랑과 신부로 고정되고 안정된 자리를 갖게 될 것임을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말은 화자의 소망과 반대로 전개된다.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사랑방에서 “오색가지 안주를 놓고 기생첩을 옆에나 찌고 회회낙락 하는” 신랑을 본다. 그 다음 행은 “건너방에 건너나와서 석자시치 멍지수건 목을 매여서 내죽었네”³³⁾이다. 흰 것은 회고 검은 것은 검다는 현실의 상식적 세계관은 돌변하는 세계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죽은 아내 앞에서 남편이 후회한다는 내용이 이어지지만 아내에게는 부질 없을 뿐이다. 돌도 좋고 물도 좋다는 며느리의 인식은 같은 것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흰 빨래는 희게 빠는 것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그러한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 결과는 자신의 죽음으로 나타났다.³⁴⁾

<바리데기>와 <구렁덩덩신선비> 설화는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바리도 저승을 무사히 다녀와 생명수를 가져와 부모를 살리고 자신은 무신이 된다. 구렁덩덩신선비의 색시도 신랑이 사는 곳을 찾아가 신부시험을 치른 후에 신랑과 잘 살았다고 한다. 이들이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이유는 물론 바리나 색시의 정성과 공력 때문이었지만 그 하나의 표현은 바로 빨래 화소이다. 검은 빨래를 희게 빨고 흰 빨래를 검게 빠는 것은 현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모순과 부조화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수용했기에 이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 현실은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흰 것은 회계만 둘 수

33)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227쪽. C2 박필숙 구연.

34) 서영숙은 며느리의 죽음이 시어머니의 통제 속에서 남편과의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그것도 상식적 세계관을 넘어설 수 없는 현실 속 며느리의 한계에 대한 무의식적 인지로 본다. 서영숙, 『한국서사민요의 낱실과 씨실』, 역락, 2009, 119쪽.

없고 검은 것도 그렇다. 세계는 늘 바뀌기에 오늘 흰 것은 내일 검은 수 있다. 검은 것은 검지만 앓고 회기도 하다. 사람은 선하거나 악하기만 하지 않고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다. 이런 세계의 모순과 부조화를 경험하고 끌어안는 자세를 배운 바리와 색시는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결말의 제시는 전체 서사 맥락을 재검토하게 하여 상식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는 빨래의 문학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물론 전승 주체들이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노래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 <진주낭군>에서는 흰 빨래는 희게 뻥다는 동일률적 표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바리데기>와 <구렁덩덩신선비>에서는 흰 빨래는 검게 뻥다는 모순적 표현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전승자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진주낭군>에서는 현실의 상식적 논리가 우세하며 신화나 민담에서는 현실을 뒤엎는 역설의 논리가 우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화와 민담은 자아의 승리를 보여주는 서사갈래이다. 세계와의 대립 과정이 전개되지만 결국은 세계와 화합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아의 성취를 얻어낸다. 이에 반해 서사민요는 자아와 세계와의 대립은 잘 보여주지만 대결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결을 할 만큼 여성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여성들의 힘이나 인식이 현실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전승주체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전승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는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글에서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영 홍태한, 『바리공주전집 1』, 민속원, 1997.
- _____, 『바리공주전집 2』, 민속원, 1997.
- 김현선, 『서울지역 안안팎굿 무가자료집』, 보고사, 2006.
-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 서영숙, 『시집살이 노래 연구』, 박이정, 1996.
- _____, 『한국서사민요의 낱실과 씨실』, 역락, 2009.
- 손지봉, 『한국설화의 중국인물 연구』, 박이정, 1999.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와 말하기의 욕망』, 혜안, 2010.
-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출판부, 1983.
- 허남춘 외, 『양창보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9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 김종균, 「<진주낭군>이 전승 양상과 서사의 의미」, 『온지논총』29, 온지학회, 2011, 67-93쪽.
- 박지애, 「<시집살이요>의 연술방식과 시공간의식」, 『한국민요학』10, 한국민요학회, 2002, 147-163쪽.
-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결혼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121-150쪽.
- 오정아, 「<조마구 설화>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유종호, 「문학과 심리학」, 김우창 김홍규 편, 『문학의 지평』,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3, 213-232쪽.
- 홍태한, 「<바리공주>의 연구성과 및 무가권의 구획」, 김진영 홍태한, 『바리공주 전집』1, 민속원, 1997, 30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A Comparative Study of ‘Doing Laundry’ Motif in <Princess Bari> and <Jinju Nanggun>

Shin Yeon Woo*

A Folk ballad work <Jinju Nanggun> and shaman epic <Princess Bari> share the same motif in common, which is the ‘doing laundry’ motif. But the process is in reverse. In <Jinju Nanggun> the daughter-in-law washes the white laundry white and black laundry black. In <Princess Bari>, however, Bari, the 7th daughter, meets old woman who asks Bari to wash the white laundry black and the black white. I reviewed the meaning of the same but contrary action.

In <Jinju Nanggun> the description of doing laundry implies the law of identity. It seems that she insists that the same thing should remain same. She is afraid of the change. And when she returns to her home, she find the reversed situation of ordinary life; Gisaeng, Korean geisha, occupied the main room. She retreated and commit a suicide with 9-colored strings.

In the shaman epic <Princess Bari> in East Coast Line, the ‘doing laundry’ motif seems to be a symbolic ritual of Bari’s ‘rite of passage’ as a shaman. the motif of washing white clothes black and reverse shows us the capacity of Bari who embraces the quick and the dead.

The Tale of <Gurŏngdŏngdŏng Sinsŏnbi(Snake Husband)> also has the same

* Seoultech

laundry motif. It is a story of a woman who get her femininity only through sore trials. It tells us the suppression and runtiness of the feminine life.

The end of the story of <Jinju Nanggun> crosses the will of the daughter-in-law. Her wish is to be in the world of the law of identity, but the world cannot keep the law purely from the changes. In <Princess Bari> and <Gurŏngdŏngdŏng Sinsŏnbi> present the other ends. While 'washing white clothes black' is a kind of incongruity and contradiction, when the heroes accept it they get what they want.

Life is not stable. The world will change. What is white today can be black tomorrow. Man is not sorely good or bad. As Bari and the Wife of <Gurŏngdŏngdŏng Sinsŏnbi> recognize the contradiction of life, they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ir lives. We also learn it from these oral traditional stories.

<key word> <Princess Bari>, <Jinju Nanggun>, <Gurŏngdŏngdŏng Sinsŏnbi(Snake Husband)>, laundry, law of identity, change